

2024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인권의 날

Part 1

지난 달 Feedback



Part 1 지난 달 주요 이슈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지난 9월 안내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제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청렴윤리경영'이었습니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의 공익 침해 예방 및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검직 및 대외활동 신고 제도 안내

(23. 8. 18.(금), 윤리감사실)

1 제도 운영 개요

□ 관련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 제25조
- 「복무규정」 제9조, 「취업규칙」 제6조 제7항
- 「검직 및 대외활동 지침」(20.5.27.)

□ 운영 목적

- 검직 허가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직원의 보다 청렴한 검직수행 활동 도모
- 임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이행 및 대가기준 준수 여부를 증진 관리하여 신고누락 및 과도한 대가수수 예방

□ 개념 정의

○ 활동구분

검직	출강	대외활동
임직원이 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연구 참여, 위원회 위촉, 교육기관 출강 등)	(검직의 범주에 포함) 직원이 재직 중 대학, 대학원 등에서 객원교수 등으로 위촉을 받아 일정기간 강의 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활동

○ 주관부서 : 윤리감사실

- 검직 및 대외활동 관리, 관련교육·홍보, 범·규정 준수여부 점검

금품수수 자진신고 제도 안내

(24. 09. 20.(금), 윤리감사실)

1 제도 운영 개요

□ 관련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 운영 목적

-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상의 금품수수 금지 원칙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통해 청렴한 기관문화 조성
- 수수금지된 금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관행 추진

□ 개념 정의

○ 강령 제22조 :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업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13.>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13.>
(이하 생략 -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 참조)

○ 강령 제33조 :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신고 및 처리 규정

제33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받더라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이하 생략 -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 참조)

* 주관부서 : 윤리감사실

자진신고 제도 안내

검직 및 대외활동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 안내문을 제공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부서활동 취합 결과

총 11개 부서 중 6개 부서 제출



주요사례 및 경영제안 아이디어 공유

혁신성과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이슈 소개 및 자료 배포
- 자진신고 제도 내용 공유
 - 검직, 출강, 대외활동 관련 적용범위와 신고절차 공유

인식개선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이슈 소개 및 자료 배포
 - 내부고발제도 타기관 우수운영 및 개선사례 공유
- 자진신고 제도 내용 공유
 - 검직, 출강, 대외활동 관련 적용범위와 신고절차 공유

가족친화서비스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이슈 소개 및 자료 배포
- 자진신고제도 내용 공유
 - 검직 및 대외활동 신고 제도 안내, 금품수수 자진신고 제도 안내
 - 자진신고 제도 궁금증 공유

가족전문인력역량강화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이슈 소개 및 자료 배포
- 자진신고 제도 내용 공유
 - 검직 및 대외활동 신고 제도 안내, 금품수수 자진신고 제도 안내

가족위기지원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이슈 소개 및 자료 배포
- 자진신고 제도 내용 공유
 - 검직 및 대외활동 신고 제도 안내, 금품수수 자진신고 제도 안내

가족센터협력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이슈 소개 및 자료 배포
 - 내부고발제도 타기관 우수운영 및 개선사례 공유
- 자진신고 제도 내용 공유
 - 검직, 출강, 대외활동 관련 적용범위와 신고절차 공유

A person is working at a desk with a computer monitor and keyboard. The person's hands are visible, typing on the keyboard. The person is wearing a white watch on their left wrist. The background is blurred, showing a desk with a mouse and a cup. The text "Part 2" is overlaid on the image in a white font on an orange background.

Part 2

이달의 주요 ISSUE

[자료 1]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9월호 (국민권익위원회)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19-0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9

공급망 관리와 청렴윤리경영

2024 September | Vol.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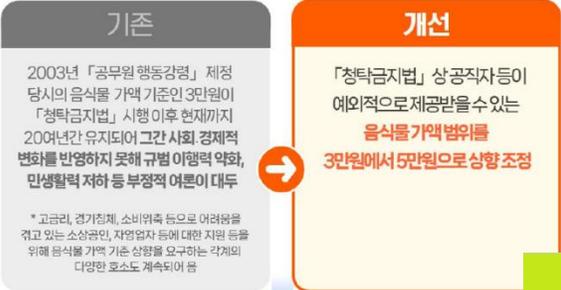
공급망 관리와 청렴윤리경영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이행 후 공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2024년 5월 24일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7월 25일에 발효되었다. 앞으로 3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역내·외 기업에 순차 적용되며,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은 매출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ESG경쟁력이 수주 경쟁력이 되고 있으므로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한국 기업의 특성상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급망 실사에서 인권과 환경분야가 가장 주요하게 검토되나, 거버넌스(반부패) 분야는 해당 분야의 관리의 효율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공급망 실사 동향 및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청렴윤리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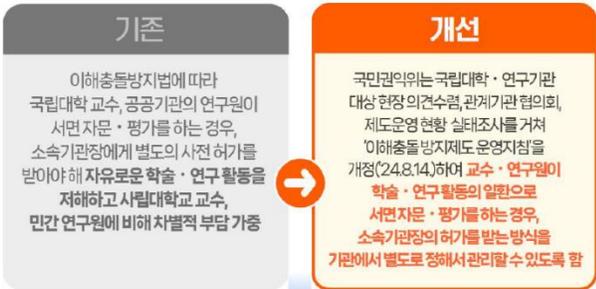
[자료2]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규제혁신 사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조정



「청탁금지법」의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규범의 이행력과 민생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제도운영 합리화



국립대학 교수,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서면 자문·평가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에서 자율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교수·연구원의 자유로운 학술·연구 활동을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8월달 규제혁신 대표사례 공유합니다.

사례 1.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 조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규범의 이행력과 민생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2.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제도운영 합리화”입니다. 교수·연구원이 학술·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서면자문·평가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을 기관에서 별도로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사례를 발췌하여 전파하오니, 각 부서별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확인 하시고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grayscale photograph of a desk setup. In the foreground, a silver pen lies diagonally across an open, lined notebook. To the right, a portion of a laptop is visible, showing the keyboard and trackpad. In the bottom right corner, a smartphone is lying flat.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surface.

Part 3

부서 활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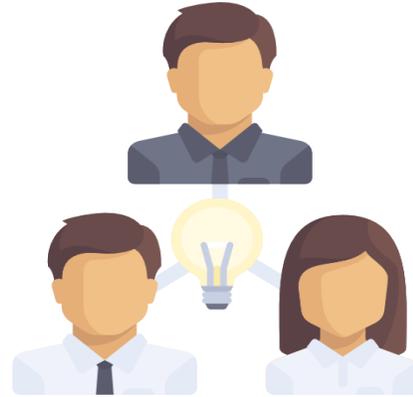
매월 셋째 주는 '청렴·인권의 날'입니다.



10월 '청렴·인권의 날' 부서활동 제출기한 : 11. 13.(수)



게시판을 통해 안내되는
이달의 주요 이슈 확인



부서회의 등을 통해
안내된 자료 공유, 활동 실시 후
실천사례, 경영제안사항 등 논의 및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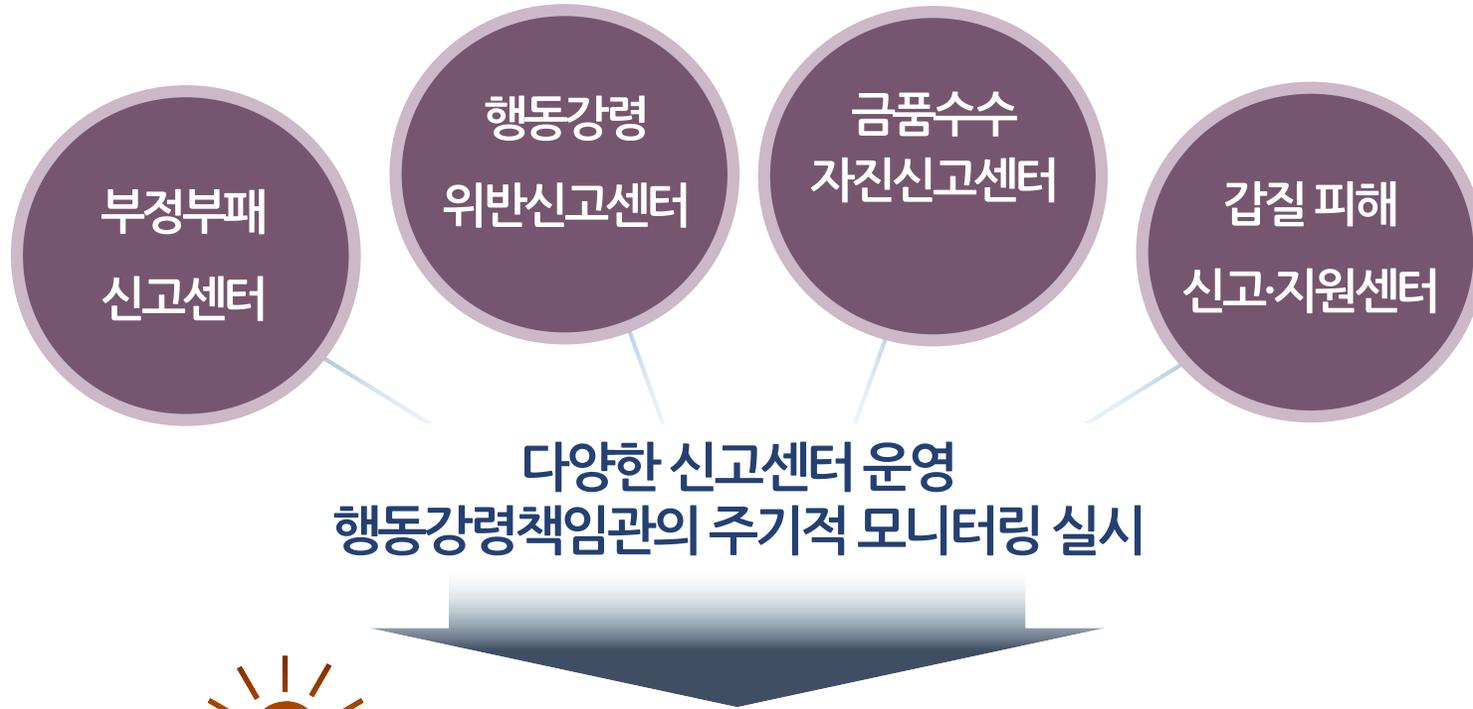


청렴리더(부서활동담당자)는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윤리감사실로 제출

(양식 활용하여 메신저, 메일 등으로 전달)

문의처 : 윤리감사실 이해영 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클린신고센터 운영 안내



윤리감사실

핫라인
clean@kihf.or.kr

청렴포털
clean.go.kr

홈페이지
www.kihf.or.kr
[ESG경영] - [신고센터]

갑질옴부즈맨
(이혜원 변호사)
wollee0505@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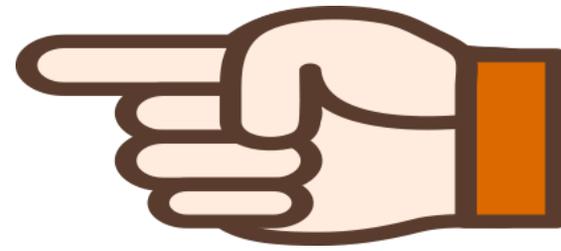
 내·외부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신고·진정·제보 등 사안별 조사 후 필요에 따라 특정감사연계 실시함으로써 재발방지 노력



아니, 이런것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목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갑질 근절 이행지침을 기반으로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에 대해

- ✓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 ✓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 ✓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알기쉽게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갑질행위 신고, 제보

가해자, 피해자, 사건관계인 그 누구라도 KIHF홈페이지, 윤리감사실 핫라인, 옴부즈맨을 통해 신고·제보

갑질 발생 시 처리요령

01



사실관계 조사

신고, 제보 등을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대처와 개인정보 보호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02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되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03

갑질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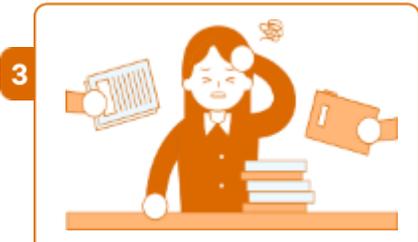
1 인격 비하, 모욕적 언행

욕설,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2 음주나 흡연 강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3 업무 불이익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외 업무지시를 하는 유형



4 비인격적 대우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갑질 신고센터



KIHF홈페이지
www.kihf.or.kr
[윤리·인권경영] - [신고센터] - [갑질신고]



윤리감사실 핫라인
clean@kihf.or.kr

갑질 근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침이웃으로 개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